

# 03 2022년 서울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컨설팅 보고서

김세인<sup>1)</sup>, 나은영<sup>1)</sup>, 이승연<sup>1)</sup>, 이해우<sup>2)</sup>

## A Consulting Report on the Operation of the Seoul Mental Health and Welfare Center in 2022

KIM SE-IN<sup>1)</sup>, NA EUN-YOUNG<sup>1)</sup>, LEE SEUNG-YEON<sup>1)</sup>, LEE HAE-WOO<sup>2)</sup>

### 초록

**연구목적** 본 조사는 서울 지역 25개 자치구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중심으로 정신건강 사례관리 현황과 집중사례관리 서비스 현황을 분석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사업 현안 및 평가를 논의하고 서울시 정신건강 정책 제안을 위한 기초 자료 등에 활용하고자 실시하였다.

**연구방법** 본 조사는 2020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각 자치구 정신건강복지센터별 정신건강사례관리시스템 (MHIS) 통계 데이터를 기반으로 서울시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사례관리 현황을 분석하였으며, 2021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서면조사를 통해 수집된 각 자치구 정신건강복지센터별 집중사례관리 서비스(ICM) 현황을 기반으로 서울시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집중사례관리 현황을 분석하였다. (※ 본 조사는 전년도 현황을 조사한 것이며, 분석 내용 일부에 대한 결과를 본 연구집에 수록하였다.)

**연구결과** 2021년 서울시 25개 자치구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 일반상담(접수상담)은 총 250,057건(평균 10,002건)으로 전년 대비 87,713건(평균 3,509건) 증가하였으며, 우울증 관련 상담 건이 35.1%를 차지하며 높게 나타났다. 상담은 주로 전화상담(66.0%) 형태로 진행되었으며, 주요 조치는 정보 제공(55.4%)이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등록회원은 총 9,926명(평균 397명)으로 유지관리 이상인 회원은 5,818명(58.6%)으로 나타났으며, F30 코드 대상자가 44.1%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신규 등록회원은 총 2,694명(평균 108명)으로 신규 등록률은 27.1%로 나타났다. 퇴록 회원의 경우 총 2,393명(평균 96명)으로 나타났다. 퇴록 사유는 서비스 종결로 인한 퇴록이 54.3%로 가장 높았다. 연계 회원은 총 2,105명(평균 84명)으로 나타났고, 주로 임의프로그램 연계(78.5%)로 진행되었다. 개별상담은 총 191,030건(평균 7,641건) 진행되었고, 자원조정은 총 17,894건(평균 716건) 진행되었다. ISP 사업 구분은 중증 정신질환이 73.2%로 가장 높았으며, 회의는 총 2,005건(평균 80건), 세미나, 자문, MOU, 견학 등 네트워크는 총 1,132건(평균 45건)으로 나타났다. 집중사례관리 연인원은 대상자 9,402명, 사례관리자 2,441명으로 사례관리자 1인당 대상자 3.9명을 관리하였으며, 선정 사유는 불안정한 만성 정신질환 대상자 38.4%, 종결 사유는 관리 구분 변경이 78.8%를 차지하여 가장 높게 나타났다. 평균 개입 기간은 매년 증가하여 2019년 175.2일, 2020년 202.1일, 2021년 205.1일로 확인되었다.

1)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  
2) 서울의료원,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

### Abstract

**Study Purpose** This survey was done to analyze the current state of mental health case management and the current state of intensive case management service by focusing on the 25 local government mental health and welfare centers in Seoul for discussing the project issues and evaluation of mental health and welfare centers and for using them as the basic material for proposing the Seoul mental health policy.

**Research Method** This survey analyzed the current state of the case management of Seoul local government mental health and welfare centers on the basis of the Mental Health Information System (MHIS) statistical data by the mental health and welfare center of each autonomous district from January 1, 2020 to December 31, 2021 and the current state of the intensive case management of Seoul local government mental health and welfare centers on the basis of the current state of the Intensive Case Management (ICM) service collected through the document survey by the mental health and welfare center of each autonomous district from January 2021 to December 2021. (※ This survey was done on the current state for the last year, and the results on the part of analysis content were recorded in this study collection.)

**Study Results** The 25 Seoul autonomous district local government mental health and welfare centers in Seoul handled total 250,057 general counseling (submission counseling) cases (10,002 cases in average) in 2021 resulting in the year-to-year increase by 87,713 cases (3,509 cases in average). The depression-related counseling cases take up the large portion of 35.1%. Counseling was done mainly with the type of telephone counseling (66.0%). Information provision (55.4%) takes up the large portion as the major measure. Registered members total 9,926 persons (397 persons in average). The members for maintenance or above total 5,818 persons (58.6%). The F30 code subjects take up the largest portion of 44.1%. New registered members total 2,694 persons (108 persons in average), and the new registration rate is 27.1%. Withdrawing members total 2,393 persons (96 persons in average). For the reason for withdrawal, the withdrawal caused from service end takes up the largest portion of 54.3%. Linked members total 2,105 persons (84 persons in average), and it was performed mainly with linkage with an arbitrary program (78.5%). Individual counseling totals 191,030 cases (7,641 cases in average), and resource adjustment totals 17,894 cases (716

1) Seoul Mental Health and Welfare Center  
2) Seoul Medical Center, Seoul Mental Health and Welfare Center

# 03 2022년 서울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컨설팅 보고서

## A Consulting Report on the Operation of the Seoul Mental Health and Welfare Center in 2022

**결론** 정신건강사례관리시스템(MHIS) 및 집중사례관리 서비스(ICM) 기반의 사례관리 서비스 분석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영향 속에서 서울시 25개 자치구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 사업 수행 현황을 파악할 수 있었다. 다만, 지역사회 정신건강 사업의 중심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전문 인력에 대한 제도적·행정적 지원, 핵심 기능 및 역할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며, 적절한 환류 체계 및 서비스 환경 조성 마련을 위한 다양한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

**주요용어** 정신건강사례관리, 정신건강사례관리시스템, 집중사례관리, 정신건강복지센터

cases in average). For the ISP project category, severe mental illness takes up the largest portion of 73.2%. Meeting totals 2,500 cases (80 cases in average). Networks such as seminars, advice, MOU, trip, etc. total 1,132 cases (45 cases in average). The total persons having received intensive case management consist of 9,402 subjects and 2,441 case managers. A case manager managed 3.9 subjects. The largest portions of the reasons for selection and end are 38.4% for unstable chronic mental illness subjects and 78.8% for management category change. The average intervention periods increased every year from 175.2 days for 2019 to 202.1 days for 2020 and 205.1 days for 2021.

**Conclusion** It was possible to identify the current state of the project performance of the 25 autonomous district local government mental health and welfare centers in Seoul under the influence of COVID-19 by analyzing the case management service based on the Mental Health Information System (MHIS) and Intensive Case Management (ICM). However,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systematic and administrative supports and core function and role of the professional manpower of the mental health and welfare center doing the central role of a community mental health project and prepare the various policies for creating the proper circulation system and service environment.

**Keywords** Mental health case management, Mental Health Information System, Intensive Case Management, mental health and welfare center

## I. 서론

정신장애 평생 유병률은 27.8%로 국민 4명 중 1명 이상은 평생 중 한 번 이상은 평생 중 한 번 이상 알코올 사용 장애, 니코틴 사용 장애, 불안장애 혹은 우울장애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 2022). 특히 최근 5년(2017~2021년)간 우울증과 불안장애의 진료 추이를 분석한 결과, 우울증 환자 수는 2017년 69만 1,164명 대비 2021년에 93만 3,481명으로 35.1%(연평균 7.8%) 증가하였으며, 불안장애 환자 수는 2017년 65만 3,694명 대비 2021년에 86만 5,108명으로 32.3%(연평균 7.3%)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도자료, 2022).

이에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전 국민 대상 정신건강 문제의 예방 및 치료, 중증 정신질환자의 관리에 대한 국가와 지역사회의 책임 성이 강조되었으며, 지역사회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정신 질환자 자원뿐만 아니라 일반인 및 고위험군 등 다양한 대상으로 의 정신건강 증진 서비스 범위 및 역할이 확대되었다.

한편,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전국 확대, 미등록 정신질환자 관리 사업 등 지역사회 정신건강 정책 방향이 다양화됨에 따라 정신건강복지센터의 기능 및 역할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었으며, 주요 정신건강 사업 관련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체계적인 연계망으로서 정신건강복지센터의 기능을 강화함과 동시에 이를 위한 서비스 질 향상 및 제고 노력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는 지역사회 내 대표적인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중심으로 표준화된 정신건강 사례관리 서비스 및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매년 현황을 분석, 운영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분석된 현황 자료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사업 현안 및 평가 관련 논의, 서울시 정신건강 정책 제안을 위한 기초자료 등으로 활용되고 있다.

## II. 연구방법

### 1. 조사대상

본 조사는 서울 지역 25개 자치구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를 대상으로 수행되었다..

### 2. 조사내용

본 조사는 정신건강사례관리시스템(Mental Health Information System; MHIS) 및 집중사례관리서비스(Intensive Case Management; ICM) 현황을 총 4가지로 구분하여 분석했다.

<표1> 조사 항목

영역	세부 항목
일반상담 (접수 상담)	- 수행 현황 / 월별 현황 / 성별 현황 / 연령별 현황 / 주요 문제 종류별 현황 / 정신장애 문제 종류별 현황 / 기관 의뢰 경로별 현황 / 상담 유형별 현황 / 주요 조치 분류별 현황
등·퇴록 회원	1. 등록회원 - 실인원 현황/성별 현황/연령별 현황/진단 코드별 현황/정신장애 등급별 현황/의료보장 형태별 현황 2. 신규 등록회원 - 실인원 현황/성별 현황/연령별 현황/진단 코드별 현황 3. 퇴록 회원 - 실인원 현황/성별 현황/연령별 현황/진단 코드별 현황/퇴록 사유별 현황 4. 연계 회원 - 실인원 현황/연계율 현황/성별 현황/연령별 현황/연계 유형별 현황/연계 기관별 현황
작·간접서비스	1. 개별상담 - 수행 현황 / 월별 현황 / 상담 유형별 현황 2. 자원조정 - 상담 유형별 현황 3. ISP - 사업 구분별 현황 4. 네트워킹 - 회의 및 네트워크 현황
집중사례관리 (ICM)	- 월별 현황/실인원 및 연인원 현황/선정 사유 및 종결 사유 현황/외래치료 및 약물 복용 현황/입원 및 재선정 현황/평균 개입 기간 현황

### 3. 조사 방법

본 조사는 2020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각 자치구 정신건강복지센터별 정신건강사례관리시스템(MHIS) 통계 데이터를 기반으로 서울시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사례관리 현황을 분석했다. 또한 2021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서면조사를 통해 수집된 각 자치구 정신건강복지센터별 집중사례관리 서비스(ICM) 현황을 기반으로 서울시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집중사례관리 현황을 분석했다.

## III. 연구결과<sup>1)</sup>

### 1. 서울시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 일반상담(접수 상담) 현황

2020년 서울시 25개 자치구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 일반상담은 총 162,344건으로 최소 1,697건부터 최대 19,160건까지 집계되었으며, 자치구 당 평균 6,494건(SD<sup>2)</sup> 4,252건)으로 나타났다. 2021년 서울시 25개 자치구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 일반상담은 총 250,057건으로 최소 3,239건부터 최대 37,366건까지 집계되었으며, 자치구 당 평균 10,002건(SD 8,132건)으로 나타나 전년 대비 87,713건(평균 3,509건) 증가, 54.0%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표2> 일반상담 수행 현황('20, '21) (단위: 건,%)

구분	20년	21년	증감	증감율
합계	162,344	250,057	87,713	54.0
평균	6,494	10,002	3,509	-
표준편차	4,252	8,132	-	-
최대값	19,160	37,366	-	-
최소값	1,697	3,239	-	-

월별 수행 현황을 살펴보면, 2020년에는 12월(20,984건, 12.9%), 11월(15,990건, 9.8%), 9월(15,810건, 9.7%) 순으로 많은 상담이 진행되었으며, 2021년에는 12월(26,195건, 10.5%), 11월(23,834건, 9.5%), 6월(23,532건, 9.4%) 순으로 많은 상담이 진행되어 전년과 유사한 현황을 보였다. 2020년 대비 2021년 가장 많은 일반상담 건수가 상승한 달은 6월로, 6월(10,103건▲), 10월(9,509건▲), 3월(9,172건▲) 순으로 많은 상승 건수를 보였다.

<표3> 월별 일반상담 수행 현황('20, '21) (단위: 건,%)

구분	20년		21년	
	건수	비율	건수	비율
1월	8,463	5.2	15,795	6.3

1) 단, 데이터의 평균 및 비율(%) 현황은 소수점 둘째자리에서(일부 둘째자리까지) 반올림하여 표기하여 결측값이 있다.  
2) 표준편차(standard deviation; STDev)

2월	8,650	5.3	14,893	6.0
3월	9,709	6.0	18,881	7.6
4월	13,134	8.1	20,185	8.1
5월	12,397	7.6	17,883	7.2
6월	13,429	8.3	23,532	9.4
7월	15,111	9.3	22,750	9.1
8월	15,293	9.4	20,481	8.2
9월	15,810	9.7	22,745	9.1
10월	13,374	8.2	22,883	9.2
11월	15,990	9.8	23,834	9.5
12월	20,984	12.9	26,195	10.5
합계	162,344	100.0	250,057	100.0

서울시 25개 자치구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 일반상담 성별 현황을 살펴보면, 2020년 일반상담 총 162,334건 중 남성 74,045건(45.6%), 여성 88,299건(54.4%)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8.8%p 높았으며, 2021년 일반상담 총 250,057건 기준 남성 115,811건(46.3%), 여성 134,246건(53.7%)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7.4%p 높은 현황을 보였다.

2020년 성별에 따른 정신건강 문제 종류를 살펴보면, 우울증 관련 문제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13.3%p, 물질 중독 관련 문제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9.8%p 가장 높은 비율 차이를 보였다. 남성의 경우, 물질 중독, 아동기 정신질환·정신건강 문제, 구분하기 어려움, 기타 질환, 행위중독, 불안장애 관련 문제에서 여성보다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여성의 경우, 우울증, 조현병, 조울증, 치매 관련 문제에서 남성보다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2021년 성별에 따른 정신건강 문제 종류를 살펴보면, 우울증 관련 문제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25.0%p, 물질 중독 관련 문제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63.2%p 가장 높은 비율 차이를 보였다. 남성의 경우, 물질 중독, 행위중독, 아동기 정신질환·정신건강 관련 문제에서 여성보다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여성의 경우, 구분하기 어려움, 기타 질환, 불안장애, 우울증, 조울증, 조현병, 치매 관련 문제에서 남성보다 높은 비율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III. 연구결과

<표4> 일반상담 성별에 따른 정신건강 문제 종류 현황('20, '21) (단위: 건)

20년	소계	구분하기 어려움	기타질환	물질중독	불안장애	아동기 정신건강	우울증	조울증	조현병	치매	행위중독
남성	74,045	9,741	10,456	8,694	6,096	9,626	19,851	2,065	7,091	180	245
	45.6	13.2	14.1	11.7	8.2	13.0	26.8	2.8	9.6	0.2	0.3
여성	88,299	10,682	11,672	1,714	7,097	9,705	35,423	2,767	8,883	297	59
	54.4	12.1	13.2	1.9	8.0	11.0	40.1	3.1	10.1	0.3	0.1
합계	162,344	20,423	22,128	10,408	13,193	19,331	55,274	4,832	15,974	477	304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21년	소계	구분하기 어려움	기타질환	물질중독	불안장애	아동기 정신건강	우울증	조울증	조현병	치매	행위중독
남성	115,811	10,728	14,547	9,322	7,678	30,246	32,944	2,188	7,601	299	258
	46.3	49.0	47.6	81.6	44.4	53.5	37.5	37.8	43.0	43.8	77.9
여성	134,246	11,146	15,994	2,103	9,604	26,341	54,928	3,600	10,073	384	73
	53.7	51.0	52.4	18.4	55.6	46.5	62.5	62.2	57.0	56.2	22.1
합계	250,057	21,874	30,541	11,425	17,282	56,587	87,872	5,788	17,674	683	331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서울시 25개 자치구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 일반상담 연령별 현황을 살펴보면, 2020년 일반상담 총 162,334건 중 20대가 33,116건(20.4%)으로 가장 많았고, 30대(28,730건, 17.7%), 40대(26,129건, 16.1%) 순으로 나타났다. 2021년의 경우, 총 250,057건 중 20대가 42,092건(17.2%)으로 가장 많았으며, 10대(41,419건, 16.6%), 30대(39,340건, 15.7%) 순으로 나타났다. 2021년 기준 전년 대비 10대 이하 비율이 12.8%에서 23.9%로 가장 많이 증가(11.1%p▲)했으며, 2·30대 비율이 38.1%에서 32.9%로 가장 많이 감소(5.2%p▼)했다.

<표5> 일반상담 연령별 현황('20, '21) (단위: 건, %)

20년	소계	10대 미만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이상
합계	162,344	5,340	15,411	33,116	28,730	26,129	24,982	18,055	7,722	2,859
	100.0	3.3	9.5	20.4	17.7	16.1	15.4	11.1	4.8	1.8
평균	6,494	214	616	1,325	1,149	1,045	999	722	309	114

21년	소계	10대 미만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이상
합계	250,057	18,253	41,419	42,902	39,340	34,807	34,663	23,499	10,684	4,490
	100.0	7.3	16.6	17.2	15.7	13.9	13.9	9.4	4.3	1.8
평균	10,002	730	1,657	1,716	1,574	1,392	1,387	940	427	180

서울시 25개 자치구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 일반상담 주요 문제 종류별 현황을 살펴보면, 2020년 일반상담 총 162,334건 중 정신건강, 정신질환 상담이 80,928건(49.8%)으로 가장 많았고, 재난 관련(51,661건, 31.8%), 자살 상담(21,229건, 13.1%) 순으로 나타났다. 2021년의 경우, 총 250,057건 중 재난 관련이 122,906건(49.2%)으로 가장 많았으며, 정신건강, 정신질환 상담(97,269건, 38.9%), 자살 상담(22,317건, 8.9%) 순으로 나타났다. 2021년 기준 전년 대비 재난 관련 비율이 31.8%에서 49.2%로 가장 많이 증가(17.3%p▲)했으며, 정신건강, 정신질환 상담 관련 비율이 49.8%에서 38.9%로 가장 많이 감소(11.0%p▼)했다.

<표6> 일반상담 주요 문제 종류별 현황('20, '21) (단위: 건, %)

20년	소계	자살	정부복지 문의	정신건강, 질환 상담	서비스 문의	기관 문의	인권침해, 차별신고	민원	다문화	세터민	실종아동 가족	재난	기타
합계	162,344	21,229	289	80,928	3,654	735	376	978	27	54	6	51,661	2,407
	100.0	13.1	0.2	49.8	2.3	0.5	0.2	0.6	0.0	0.0	0.0	31.8	1.5
평균	6,494	849	12	3,237	146	29	15	39	1	2	0	2,066	96

21년	소계	자살	정부복지 문의	정신건강, 질환 상담	서비스 문의	기관 문의	인권침해, 차별신고	민원	다문화	세터민	실종아동 가족	재난	기타
합계	250,057	22,317	423	97,269	3,902	1,172	240	1,273	103	37	37	122,906	378
	100.0	8.9	0.2	38.9	1.6	0.5	0.1	0.5	0.0	0.0	0.0	49.2	0.2
평균	10,002	893	17	3,891	156	47	10	51	4	1	1	4,916	15

서울시 25개 자치구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 일반상담 정신건강 문제 종류별 현황을 살펴보면, 2020년 일반상담 총 162,334건 중 우울증이 55,274건(34.0%)으로 가장 많았고, 기타 질환(22,128건, 13.6%), 구분하기 어려움(20,423건, 12.6%) 순으로 나타났다. 2021년의 경우, 총 250,057건 중 우울증이 87,872건(35.1%)으

로 가장 많았으며, 아동기 정신질환·정신건강(56,587건, 22.6%), 기타 질환(30,541건, 12.2%) 순으로 나타났다. 2021년 기준 전년 대비 아동기 정신질환, 정신건강 관련 비율이 11.9%에서 22.6%로 가장 많이 증가(10.7%p▲)했으며, 구분하기 어려움 관련 비율이 12.6%에서 8.7%로 가장 많이 감소(3.8%p▼)했다.

<표7> 일반상담 정신건강 문제 종류별 현황('20, '21) (단위: 건, %)

20년	소계	불안장애	아동기 정신질환	알코올/ 약물중독	우울증	조울증	조현병/ 망상장애	치매	행위중독	기타질환	구분하기 어려움
합계	162,344	13,193	19,331	10,408	55,274	4,832	15,974	477	304	22,128	20,423
	100.0	8.1	11.9	6.4	34.0	3.0	9.8	0.3	0.2	13.6	12.6
평균	6,494	528	773	416	2,211	193	639	19	12	885	817

21년	소계	불안장애	아동기 정신질환	알코올/ 약물중독	우울증	조울증	조현병/ 망상장애	치매	행위중독	기타질환	구분하기 어려움
합계	250,057	17,282	56,587	11,425	87,872	5,788	17,674	683	331	30,541	21,874
	100.0	6.9	22.6	4.6	35.1	2.3	7.1	0.3	0.1	12.2	8.7
평균	10,002	691	2,263	457	3,515	232	707	27	13	1,222	875

서울시 25개 자치구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 일반상담 기관 의뢰경로별 현황의 경우, 정보제공자/본인여부 내 “기관종사자”를 기준으로 중분류 데이터를 확인해 비교했다. 2020년 일반상담 총 162,344건(평균 6,494건) 대비 외부 기관 의뢰 건수는 29,195건(평균 1,168건)으로 의뢰율은 18.0%였으며, 2021년 일반상담 총 250,057건(평균 10,002건) 대비 외부 기관 의뢰 건수는 39,230건(평균 1,569건), 의뢰율 15.7%로 전년 대비 2.3%p 감소한 현황을 보였다. 2020년 일반상담 기관 의뢰 총 29,195건 중 행정기관이 16,971

건(58.1%)으로 가장 많았고, 의료기관(5,242건, 18.0%), 지역사회기관(4,344건, 14.9%), 정신보건기관(2,638건, 9.0%) 순으로 나타났다. 2021년의 경우, 기관 의뢰 총 39,230건 중 행정기관이 24,418건(62.2%)으로 가장 많았으며, 지역사회기관(5,606건, 14.3%), 의료기관(5,371건, 13.7%), 정신보건기관(3,835건, 9.8%) 순으로 나타났다. 2021년 기준 전년 대비 행정기관 의뢰 비율이 58.1%에서 62.2%로 가장 많이 증가(4.1%p▲)했으며, 의료기관 의뢰 비율이 18.0%에서 13.7%로 가장 많이 감소(4.3%p▼)했다.



III. 연구결과

<표8> 일반상담 기관 의뢰경로별 현황(’20, ’21) (단위: 건, %)

20년	소계		의료기관		정신보건기관		지역사회기관		행정기관	
합계	29,195	100.0	5,242	18.0	2,638	9.0	4,344	14.9	16,971	58.1
평균	1,168	-	210	-	106	-	174	-	679	-
21년	소계		의료기관		정신보건기관		지역사회기관		행정기관	
합계	39,230	100.0	5,371	13.7	3,835	9.8	5,606	14.3	24,418	62.2
평균	1,569	-	215	-	153	-	224	-	977	-

서울시 25개 자치구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 일반상담 상담 유형별 현황을 살펴보면, 2020년 일반상담 총 162,334건 중 전화상담이 106,905건(65.9%)으로 가장 많았고, 온라인 상담(18,927건, 11.7%), 기타 상담(14,246건, 8.8%), 내소상담(12,883건, 7.9%) 순으로 나타났다. 2021년의 경우, 총 250,057건 중 전화상담이 165,161건(66.0%)으로 가장 많았고, 온라인 상담(38,174건, 15.3%), 내소상담(18,329건, 7.3%), 기타 상담

(14,112건, 5.6%) 순으로 나타났다. 상담 유형 중 대면율<sup>3)</sup> 현황을 살펴보면, 2020년 13.7% (22,266건, 평균 891건)에서 2021년 13.0%(32,600건, 평균 1,304건)로 전년 대비 대면율이 0.7%p 감소했다. 2021년 기준 전년 대비 온라인 상담 비율이 11.7%에서 15.3%로 가장 많이 증가(3.6%p▲)했으며, 기타 상담 비율이 8.8%에서 5.6%로 가장 많이 감소(3.1%p▼)했다.

<표9> 일반상담 상담 유형별 현황(’20, ’21) (단위: 건, %)

20년	소계		내소		방문		온라인		이동상담		전화		기타	
합계	162,344	100.0	12,833	7.9	9,200	5.7	18,927	11.7	233	0.1	106,905	65.9	14,246	8.8
평균	6,494	-	513	-	368	-	757	-	9	-	4,276	-	570	-
21년	소계		내소		방문		온라인		이동상담		전화		기타	
합계	250,057	100.0	18,329	7.3	10,260	4.1	38,174	15.3	4,011	1.6	165,161	66.0	14,122	5.6
평균	10,002	-	733	-	410	-	1,527	-	160	-	6,606	-	565	-

서울시 25개 자치구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 일반상담 주요 조치 분류별 현황을 살펴보면, 2020년 일반상담 총 162,334건 중 지속 상담이 75,256건(46.4%)으로 가장 많았고, 정보 제공(75,082건, 46.2%), 기타(3,189건, 2.0%) 순으로 나타났다. 2021년의 경우, 총 250,057건 중 정보 제공이 138,594건

(55.4%)으로 가장 많았으며, 지속 상담(95,969건, 38.4%), 서비스 연계(5,789건, 2.3%) 순으로 나타났다. 2021년 기준 전년 대비 정보 제공 비율이 46.2%에서 55.4%로 가장 많이 증가(9.2%p▲)했으며, 지속 상담 비율이 46.4%에서 38.4%로 가장 많이 감소(8.0%p▼)했다.

<표10> 일반상담 주요 조치 분류별 현황(’20, ’21) (단위: 건, %)

20년	소계	경찰 및 119 의뢰	등록관리	서비스 연계	응급출동	정보제공	지속상담	치료연계	기타
합계	162,344	451	2,000	2,264	1,376	75,082	75,256	2,726	3,189
	100.0	0.3	1.2	1.4	0.8	46.2	46.4	1.7	2.0
평균	6,494	18	80	91	55	3,003	3,010	109	128
21년	소계	경찰 및 119 의뢰	등록관리	서비스 연계	응급출동	정보제공	지속상담	치료연계	기타
합계	250,057	489	2,134	5,786	1,298	138,594	95,969	2,471	3,316
	100.0	0.2	0.9	2.3	0.5	55.4	38.4	1.0	1.3
평균	10,002	20	85	231	52	5,544	3,839	99	133

3) 대면: 상담 유형 중 '내소, 방문, 이동상담' | 비대면: 상담 유형 중 '온라인, 전화 기타'

2. 서울시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 등·퇴·회·원·현·황

1) 등록회원 현황

2020년 서울시 25개 자치구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회원은 총 9,627명으로 최소 256명부터 최대 578명까지 등록되어 사례관리 진행되었으며, 자치구 당 평균 385명(SD 78명)으로 나타났다. 2021년 서울시 25개 자치구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회원은 총 9,926명으로 최소 305명부터 최대 572명까지 등록되어 사례관리 진행되었고, 자치구 당 평균 397명(SD 65명)으로 나타나 전

년 대비 299명(평균 12명) 증가, 3.1%의 증가율을 보였다. 이 중 가장 마지막에 수립한 ISP를 기준으로 유지관리 이상 비율을 살펴보면, 2020년 등록회원 9,627명 중 유지관리 이상 등록회원은 5,545명(평균 222명)으로 57.6%를 차지하였으며, 2021년 등록회원 9,926명 중 유지관리 이상 등록회원은 5,818명(평균 233명)으로 58.6%를 차지하여 전년 대비 273명(1.0%p)의 상승을 보였다.

<표11> 유지관리 이상 등록회원 현황(’20, ’21) (단위: 명, %)

구분	20년			21년		
	등록회원	유지관리 이상 등록회원		등록회원	유지관리 이상 등록회원	
합계	9,627	5,545	57.6	9,926	5,818	58.6
평균	385	222	-	397	233	-
표준편차	78	66	-	65	64	-
최대값	578	369	-	572	354	-
최소값	256	108	-	305	97	-

서울시 25개 자치구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회원 성별 현황을 살펴보면, 2020년 등록회원 9,627명 중 남성 4,330명(45.0%), 여성 5,297명(55.0%)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10.0%p 높

았으며, 2021년 등록회원 9,926명 중 남성 4,487명(45.2%), 여성 5,439명(54.8%)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9.6%p 높은 현황을 보였다.

<표12> 등록회원 성별 현황(’20, ’21) (단위: 명, %)

구분	20년				21년			
	남성		여성		남성		여성	
합계	4,330	45.0	5,297	55.0	4,487	45.2	5,439	54.8
평균	173	-	212	-	179	-	218	-

서울시 25개 자치구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회원 연령별 현황을 살펴보면, 2020년 등록회원 9,627명 중 50대가 2,243명(23.3%)으로 가장 많았고, 40대(1,724명, 17.9%), 60대(1,549명, 16.1%), 30대(1,044명, 10.8%) 순으로 나타났다. 2021년 등록회원 9,926명 중 50대가 2,207명(22.2%)으로 가장 많았으며,

40대(1,693명, 17.1%), 60대(1,653명, 16.7%), 30대(1,121명, 11.3%) 순으로 나타났다. 2021년 기준 전년 대비 20대 비율이 10.0%에서 11.2%로 가장 많이 증가(1.1%p▲)했으며, 40대의 비율이 17.9%에서 17.1%로 가장 많이 감소(0.9%p▼)했다. 단, 일반상담 연령대 변화 대비 비교적 유사한 현황을 보였다.

<표13> 등록회원 연령별 현황(’20, ’21) (단위: 명, %)

20년	소계	10대 미만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이상
합계	9,627	313	979	967	1,044	1,724	2,243	1,549	630	178
	100.0	3.3	10.2	10.0	10.8	17.9	23.3	16.1	6.5	1.8
평균	385	13	39	39	42	69	90	62	25	7
21년	소계	10대 미만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이상
합계	9,926	283	1,075	1,109	1,121	1,693	2,207	1,653	594	191
	100.0	2.9	10.8	11.2	11.3	17.1	22.2	16.7	6.0	1.9
평균	397	11	43	44	45	68	88	66	24	8

III. 연구결과

서울시 25개 자치구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회원 진단 코드별 현황을 살펴보면, 2020년 등록회원 9,627명 중 F30 코드가 4,074명(42.3%)으로 가장 많았고, F20(3,909명, 40.6%), F90(789명, 8.2%) 순으로 나타났다. 2021년 등록회원 9,926명 중 F30코드가 4,375명(44.1%)으로 가장 많았으며, F20(3,812

명, 38.4%), F90(895명, 9.0%) 순으로 나타났다. 2021년 기준 전년 대비 F30 코드 비율이 42.3%에서 44.1%로 가장 많이 증가(1.8%p▲)했으며, F20 코드 비율이 40.6%에서 38.4%로 가장 많이 감소(2.2%p▼)했다.

<표14> 등록회원 진단 코드별 현황('20, '21) (단위: 명, %)

20년	소계	F00	F10, IA	F20	F30	F40	F50	F60	F80	F90	기타
합계	9,627	20	527	3,909	4,074	143	5	15	6	789	139
	100.0	0.2	5.5	40.6	42.3	1.5	0.1	0.2	0.1	8.2	1.4
평균	385	1	21	156	163	6	0	1	0	32	6
21년	소계	F00	F10, IA	F20	F30	F40	F50	F60	F80	F90	기타
합계	9,926	11	562	3,812	4,375	179	3	13	4	895	72
	100.0	0.1	5.7	38.4	44.1	1.8	0.0	0.1	0.0	9.0	0.7
평균	397	0	22	152	175	7	0	1	0	36	3

서울시 25개 자치구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회원 정신장애 등급별 현황을 살펴보면, 2020년 등록회원 9,627명 중 정신장애 등급이 없는 대상자가 6,901명(71.7%)으로 가장 많았고, 3급(1,993명, 20.7%), 2급(499명, 5.2%) 순으로 나타났다. 2021년 등록회원 9,926명 중 정신장애 등급이 없는 대상자가 7,324

명(73.8%)으로 가장 많았으며, 전년과 동일하게 3급(1,859명, 18.7%), 2급(444명, 4.5%) 순으로 나타났다. 2021년 기준 전년 대비 정신장애 등급이 없는 대상자의 비율이 71.7%에서 73.8%로 가장 많이 증가(2.1%p▲)했으며, 3급 대상자의 비율이 20.7%에서 18.7%로 가장 많이 감소(2.0%p▼)했다.

<표15> 등록회원 정신장애 등급별 현황('20, '21) (단위: 명, %)

20년	소계	1급	2급	3급	경증	중증	기타/미상	없음
합계	9,627	56	499	1,993	14	91	73	6,901
	100.0	0.6	5.2	20.7	0.1	0.9	0.8	71.7
평균	385	2	20	80	1	4	3	276
21년	소계	1급	2급	3급	경증	중증	기타/미상	없음
합계	9,926	56	444	1,859	23	152	68	7,324
	100.0	0.6	4.5	18.7	0.2	1.5	0.7	73.8
평균	397	2	18	74	1	6	3	293

서울시 25개 자치구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회원 의료보장 형태별 현황을 살펴보면, 2020년 등록회원 9,627명 중 건강보험 대상자가 4,158명(43.2%)으로 가장 많았고, 의료급여 1종(3,949명, 41.0%), 의료급여 2종(918명, 9.5%) 순으로 나타났다. 2021년 등록회원 9,926명 중 건강보험 대상자가 4,471명(45.0%)으로

가장 많았으며, 전년과 동일하게 의료급여 1종(3,897명, 39.3%), 의료급여 2종(959명, 9.7%) 순으로 나타났다. 2021년 기준 전년 대비 건강보험 대상자의 비율이 43.2%에서 45.0%로 가장 많이 증가(1.9%p▲)했으며, 의료급여 1종 대상자의 비율이 41.0%에서 39.3%로 가장 많이 감소(1.8%p▼)했다.

<표16> 등록회원 의료보장 형태별 현황('20, '21) (단위: 명, %)

20년	소계	건강보험	의료급여 1종	의료급여 2종	차상위	미가입/미상
합계	9,627	4,158	3,949	918	531	71
	100.0	43.2	41.0	9.5	5.5	0.7
평균	385	166	158	37	21	3
21년	소계	건강보험	의료급여 1종	의료급여 2종	차상위	미가입/미상
합계	9,926	4,471	3,897	959	528	71
	100.0	45.0	39.3	9.7	5.3	0.7
평균	397	179	156	38	21	3

2) 신규 등록회원 현황

2020년 서울시 25개 자치구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 신규 등록회원은 총 2,867명으로 최소 53명부터 최대 281명까지 신규 회원으로 등록되었으며, 자치구 당 평균 115명(SD 51명)으로 나타났다. 2021년 서울시 25개 자치구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 신규 등록회원은 총 2,694명으로 최소 62명부터 최대 179명까지 신규 회원으로 등록되었고, 자치구 당 평균 108명(SD 34명)으로 나타나 전년

대비 173명(평균 7명), 6.0%의 감소율을 보였다. 이에 등록회원 대비 신규 등록회원 비율을 살펴보면 2020년 등록회원 9,627명 중 신규 등록회원은 2,867명으로 29.8%의 신규 등록률을 보였다. 2021년의 경우, 등록회원 9,926명 중 신규 등록회원은 2,694명, 신규 등록률 27.1%로, 전년 대비 2.7%p의 감소를 보였다.

<표17> 신규 등록률 현황('20, '21) (단위: 명, %)

구분	20년			21년		
	등록회원	신규 등록회원		등록회원	신규 등록회원	
합계	9,627	2,867	29.8	9,926	2,694	27.1
평균	385	115	-	397	108	-
표준편차	78	51	-	65	34	-
최대값	578	281	-	572	179	-
최소값	256	53	-	305	62	-

서울시 25개 자치구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 신규 등록회원 성별 현황을 살펴보면, 2020년 신규 등록회원 2,867명 중 남성 1,250명(43.6%), 여성 1,617명(56.4%)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12.8%p

높았으며, 2021년 신규 등록회원 2,694명 중 남성 1,202명(44.6%), 여성 1,492명(55.4%)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10.8%p 높은 현황을 보였다.

<표18> 신규 등록회원 성별 현황('20, '21) (단위: 명, %)

구분	20년				21년			
	남성		여성		남성		여성	
합계	1,250	43.6	1,617	56.4	1,202	44.6	1,492	55.4
평균	50	-	65	-	48	-	60	-

서울시 25개 자치구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 신규 등록회원 연령별 현황을 살펴보면, 2020년 신규 등록회원 2,867명 중 20대가 519명(18.1%)으로 가장 많았고, 50대(470명, 16.4%), 40대(408명, 14.2%), 10대(369명, 12.9%) 순으로 나타났다. 2021년 역시 신규 등록회원 2,694명 중 20대가 557명(20.7%)으로 가

장 많았으며, 10대(454명, 16.9%), 50대(380명, 14.1%), 30대(365명, 13.5%) 순<sup>4)</sup>으로 나타났다. 2021년 기준 전년 대비 10대 신규 등록회원의 비율이 12.9%에서 16.9%로 가장 많이 증가(4.0%p▲)했으며, 5·60대 신규 등록회원의 비율이 각각 16.4%에서 14.1%, 11.5%에서 9.2%로 가장 많이 감소(2.3%p▼)했다.

4) 단, 자살 관련 사업 대상자의 경우 생년월일 기재 없이 등록 가능하여 일부 대상자는 연령대 확인할 수 없어 “확인 불가”로 집계

III. 연구결과

<표19> 신규 등록회원 연령별 현황('20, '21) (단위: 명, %)

20년	소계	10대 미만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이상	확인 불가
합계	2,867	196	369	519	359	408	470	329	125	35	57
	100.0	6.8	12.9	18.1	12.5	14.2	16.4	11.5	4.4	1.2	2.0
평균	115	6	15	21	14	16	19	13	5	1	2
21년	소계	10대 미만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이상	확인 불가
합계	2,694	165	454	557	365	355	380	247	100	16	55
	100.0	6.1	16.9	20.7	13.5	13.2	14.1	9.2	3.7	0.6	2.0
평균	108	7	18	22	15	14	15	10	4	1	2

서울시 25개 자치구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 신규 등록회원 진단 코드별 현황을 살펴보면, 2020년 신규 등록회원 2,867명 중 F30 코드가 1,511명(52.7%)으로 가장 많았고, F20(628명, 21.9%), F90(313명, 10.9%) 순으로 나타났다. 2021년도 신규 등록회원 2,694명 중 F30 코드가 1,422명(52.8%)으로 가장 많았으

며, F20(511명, 19.0%), F90(443명, 16.4%) 순으로 나타났다. 2021년 기준 전년 대비 F90 코드 비율이 10.9%에서 16.4%로 가장 많이 증가(5.5%p▲)했으며, F20 코드 비율이 21.9%에서 19.0%로 가장 많이 감소(2.9%p▼)했다.

<표20> 신규 등록회원 진단 코드별 현황('20, '21) (단위: 명, %)

20년	소계	F00	F10, IA	F20	F30	F40	F50	F60	F7,80	F90	기타
합계	2,867	5	155	628	1,511	78	2	9	1	313	165
	100.0	0.2	5.4	21.9	52.7	2.7	0.1	0.3	0.0	10.9	5.8
평균	115	0	6	25	60	3	0	0	0	13	7
21년	소계	F00	F10, IA	F20	F30	F40	F50	F60	F7,80	F90	기타
합계	2,694	1	155	511	1,422	91	0	7	3	443	61
	100.0	0.0	5.8	19.0	52.8	3.4	0.0	0.3	0.1	16.4	2.3
평균	108	0	6	20	57	4	0	0	0	18	2

3) 퇴록 회원 현황

2020년 서울시 25개 자치구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 퇴록 회원은 총 1,271명으로 최소 18명부터 최대 140명까지 퇴록 되었으며, 자치구 당 평균 51명(SD 29명)으로 나타났다. 2021년 서울시 25개 자치구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 퇴록 회원은 총 2,393명

으로 최소 28명부터 최대 245명까지 퇴록 되었고, 자치구 당 평균 96명(SD 52명)으로 나타나 전년 대비 1,122명(평균 45명), 88.3%의 증가율을 보였다.

<표21> 퇴록 회원 현황('20, '21) (단위: 명, %)

구분	20년	21년	증감	증감율
합계	1,271	2,393	1,122	88.3
평균	51	96	45	-
표준편차	29	52	-	-
최대값	140	245	-	-
최소값	18	28	-	-

퇴록 회원의 성별 현황을 살펴보면, 2020년 퇴록 회원 1,271명 중 남성 593명(46.7%), 여성 678명(53.5%)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12.6%p 높은 현황을 보였다. 2020년 대비 2021년 퇴록 회원 중 여성의 비율이 남성의 비율보다 3.0%p 가량 많이 차지했다.

<표22> 퇴록 회원 성별 현황('20, '21) (단위: 명, %)

구분	20년						21년					
	남성		여성		소계		남성		여성		소계	
합계	593	46.7	678	53.3	1,271	100.0	1,046	43.7	1,347	56.3	2,393	100.0
평균	24	-	27	-	51	-	42	-	54	-	96	-

서울시 25개 자치구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 퇴록 회원 연령별 현황을 살펴보면, 2020년 퇴록 회원 1,271명 중 50대가 223명(17.5%)으로 가장 많았고, 40대(181명, 14.2%), 60대(171명, 13.5%) 순으로 나타났다. 2021년의 경우, 퇴록 회원 2,393명 중 10대가 401명(16.8%)으로 가장 많았고, 뒤이어 50대(371명, 15.5%), 20대(346명, 14.5%) 순<sup>5)</sup>으로 나타났다. 2021년 기준 전년 대비 10대 퇴록 회원의 비율이 12.6%에서 16.8%로 가장 많이 증가(4.2%p▲)했으며, 30대 퇴록 회원의 비율이 12.4%에서 9.5%로 가장 많이 감소(2.9%p▼)했다.

<표23> 퇴록 회원 연령별 현황('20, '21) (단위: 명, %)

20년	소계	10대 미만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이상	확인 불가
합계	1,271	65	160	151	157	181	223	171	78	78	56
	100.0	5.1	12.6	11.9	12.4	14.2	17.5	13.5	6.1	6.1	4.4
평균	51	3	6	6	6	7	9	7	3	1	2
21년	소계	10대 미만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이상	확인 불가
합계	2,393	80	401	346	227	286	371	306	160	42	174
	100.0	3.3	16.8	14.5	9.5	12.0	15.5	12.8	6.7	1.8	7.3
평균	96	3	16	14	9	11	15	12	6	2	7

5) 단, 자살 관련 사업 대상자의 경우 생년월일 기재 없이 등록 가능하여 일부 대상자는 연령대 확인할 수 없어 “확인 불가”로 집계

III. 연구결과

서울시 25개 자치구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 퇴록 회원 진단 코드별 현황을 살펴보면, 2020년 퇴록 회원 1,271명 중 F30 코드가 571명(4.9%)으로 가장 많았고, F20(384명, 30.2%), F90(150명, 11.8%) 순으로 나타났다. 2021년도 퇴록 회원 2,393명 중 F30 코드가 1,111명(46.4%)으로 가장 많았으며,

F20(629명, 26.3%), F90(398명, 16.6%) 순으로 나타났다. 2021년 기준 전년 대비 F90 코드 비율이 11.8%에서 16.6%로 가장 많이 증가(4.8%p▲)했으며, F20 코드 비율이 30.2%에서 26.3%로 가장 많이 감소(3.9%p▼)했다.

<표24> 퇴록 회원 진단 코드별 현황('20, '21) (단위: 명, %)

20년	소계	F00	F10, IA	F20	F30	F40	F50	F60	F7,80	F90	기타
합계	1,271	5	83	384	571	25	0	4	1	150	48
	100.0	0.4	6.5	30.2	44.9	2.0	0.0	0.3	0.1	11.8	3.8
평균	51	0	3	15	23	1	0	0	0	6	2
21년	소계	F00	F10, IA	F20	F30	F40	F50	F60	F7,80	F90	기타
합계	2,393	8	122	629	1,111	63	1	6	4	398	51
	100.0	0.3	5.1	26.3	46.4	2.6	0.0	0.3	0.2	16.6	2.1
평균	96	0	5	25	44	3	0	0	0	16	2

서울시 25개 자치구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 퇴록 사유별 현황을 살펴보면, 2020년 퇴록 회원 1,271명 중 서비스 종결로 인한 퇴록 회원이 504명(39.7%)으로 가장 많았으며, 사례관리 연계(293명, 23.1%), 자살위험 감소(203명, 16.0%) 순으로 나타났다. 2021년 역시 퇴록 회원 2,393명 중 서비스 종결로 인한 퇴록 회원이 1,300명(54.3%)으로 가장 많았고, 사례관리 연계

(363명, 15.2%), 자살위험 감소(266명, 11.1%) 순으로 나타났다. 2021년 기준 전년 대비 서비스 종결로 인한 퇴록 회원의 비율이 39.7%에서 54.3%로 가장 많이 증가(14.7%p▲)했으며, 사례관리 연계로 인한 퇴록 회원의 비율이 23.1%에서 15.2%로 가장 많이 감소(7.9%p▼)했다.

<표25> 퇴록 회원 퇴록 사유별 현황('20, '21) (단위: 명, %)

20년	소계	사례관리 연계	사망	서비스 종결	자살위험 감소	전출	기타
합계	1,271	293	77	504	203	125	69
	100.0	23.1	6.1	39.7	16.0	9.8	5.4
평균	51	12	3	20	8	5	3
21년	소계	사례관리 연계	사망	서비스 종결	자살위험 감소	전출	기타
합계	2,393	363	120	1,300	266	247	97
	100.0	15.2	5.0	54.3	11.1	10.3	4.1
평균	96	15	5	52	11	10	4

4) 연계 회원 현황

2020년 서울시 25개 자치구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 연계 회원은 총 1,668명으로 최소 7명부터 최대 328명까지 타 기관으로 연계되었으며, 자치구 당 평균 67명(SD 64명)으로 나타났다. 2021년 서울시 25개 자치구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 연계 회원은 총 2,105명으로 최소 10명부터 최대 274명까지 타 기관으로 연계되었고, 자치구 당 평균 84명(SD 64명)으로 나타나 전년 대

비 437명(평균 17명), 26.2%의 증가율을 보였다. 이에 등록회원 대비 연계 회원 비율을 살펴보면, 2020년 등록회원 9,627명 중 연계 회원은 1,668명으로 17.3%의 연계율을 보였다. 2021년의 경우, 등록회원 9,926명 중 연계 회원은 2,105명으로 연계율 21.2%를 보였으며, 전년 대비 3.9%p 증가하였다.

<표26> 연계회원 및 연계율 현황('20, '21) (단위: 명, %)

구분	20년			21년		
	등록회원	연계 회원		등록회원	연계 회원	
합계	9,627	1,668	17.3	9,926	2,105	21.2
평균	385	67	-	397	84	-
표준편차	78	64	-	65	64	-
최대값	578	328	-	572	274	-
최소값	256	7	-	305	10	-

서울시 25개 자치구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 연계 회원 성별 현황을 살펴보면, 2020년 연계 회원 1,668명 중 남성 790명(47.4%), 여성 878명(52.6%)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5.2%p 높

았으며, 2021년 연계 회원 2,105명 중 남성 957명(45.5%), 여성 1,148명(54.5%)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9.0%p 높은 현황을 보였다.

<표27> 연계 회원 성별 현황('20, '21) (단위: 명, %)

구분	20년				21년			
	남성		여성		남성		여성	
합계	790	47.4	878	52.6	957	45.5	1,148	54.5
평균	32	-	35	-	38	-	46	-

서울시 25개 자치구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 연계 회원 연령별 현황을 살펴보면, 2020년 연계 회원 1,668명 중 50대가 354명(21.2%)으로 가장 많았고, 60대(257명, 15.4%), 40대(239명, 14.3%) 순으로 나타났다. 2021년의 경우, 연계 회원 2,105명 중 40대가 365명(17.3%)으로 가장 많았으며, 50대(349

명, 16.6%), 10대(331명, 15.7%) 순으로 나타났다. 2021년 기준 전년 대비 40대 연계 회원의 비율이 14.3%에서 17.3%로 가장 많이 증가(3.0%p▲)했으며, 뒤이어 20대 연계 회원의 비율이 10.3%에서 13.1%로 증가(2.9%p▲)했다. 반면에 50대 연계 회원의 비율이 21.2%에서 16.6%로 가장 많이 감소(4.6%p▼)했다.

<표28> 연계 회원 연령별 현황('20, '21) (단위: 명, %)

20년	소계	10대 미만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이상
합계	1,668	107	224	171	200	239	354	257	94	22
	100.0	6.4	13.4	10.3	12.0	14.3	21.2	15.4	5.6	1.3
평균	67	4	9	7	8	10	14	10	4	1
21년	소계	10대 미만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이상
합계	2,105	123	331	276	264	365	349	280	85	32
	100.0	5.8	15.7	13.1	12.5	17.3	16.6	13.3	4.0	1.5
평균	84	5	13	11	11	15	14	11	3	1



III. 연구결과

2020년 서울시 25개 자치구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 연계 회원에 따른 연계 건수를 살펴보면, 2020년 연계 회원 1,668명 대비 연계 건수는 2,484건(평균 99건)으로 1인당 평균 1.49건의 연

계가 수행되었다. 2021년의 경우, 연계 회원 2,105명 대비 연계 건수는 3,241건(평균 130건)으로 1인당 평균 1.54건의 연계가 수행되어 전년 대비 0.05건(3.4%) 높아진 현황을 보였다.

<표29> 연계 회원 및 연계 건수 현황(’20, ’21) <sup>6)</sup> (단위: 명, 건)

구분	20년			21년		
	연계 회원	연계 건수		연계 회원	연계 건수	
합계	1,668	2,484	1.49	2,105	3,241	1.54
평균	67	99	-	84	130	-

서울시 25개 자치구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 연계 회원의 연계 처리 유형별 현황을 살펴보면, 2020년 2,484건의 연계 건수 중 1,852건(74.6%)이 임의프로그램 연계로 가장 많았고, 뒤이어 사례관리 연계(359건, 14.5%), 프로그램 연계(245건, 9.9%), 임의 연계(28건, 1.1%) 순으로 나타났다. 2021년의 경우, 총 3,241건의 연계 건수 중 임의프로그램 연계가 2,544건(78.5%)으로 가

장 많았으며, 사례관리 연계(439건, 13.5%), 프로그램 연계(231건, 7.1%), 임의 연계(27건, 0.8%) 순으로 나타났다. 2021년 기준 전년 대비 임의프로그램 연계 비율이 74.6%에서 78.5%로 가장 많이 증가(3.6%p▲)했으며, 프로그램 연계 비율이 9.9%에서 7.1%로 가장 많이 감소(2.8%p▼)했다.

<표30> 연계 회원 연계처리 유형별 현황(’20, ’21) (단위: 건, %)

20년	소계	사례관리 연계	임의 연계	임의 프로그램 연계	프로그램 연계
합계	2,484	359	28	1,852	245
	100.0	14.5	1.1	74.6	9.9
평균	99	14	1	74	10
21년	소계	사례관리 연계	임의 연계	임의 프로그램 연계	프로그램 연계
합계	3,241	439	27	2,544	231
	100.0	13.5	0.8	78.5	7.1
평균	130	18	1	102	9

서울시 25개 자치구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 연계 회원의 연계기관별 현황을 살펴보면, 2020년 2,484건의 연계 건수 중 931건(37.5%)이 의료기관으로 연계되었으며, 지역사회기관(686건, 27.6%), 정신보건기관(475건, 19.1%) 순으로 나타났다. 2021년 경우, 총 3,241건의 연계 건수 중 지역사회기관으로의 연계 건수가 993건(30.6%)으로 가장 많았으며, 뒤이어 의료기관(859

건, 26.5%), 정신보건기관(613건, 18.9%) 순으로 나타났다. 2021년 기준 전년 대비 보건소 연계 비율이 1.7%에서 9.4%로 가장 많이 증가(7.7%p▲)했으며, 의료기관 연계 비율이 37.5%에서 26.5%로 가장 많이 감소(11.0%p▼)했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영향으로 추정된다.

<표31> 연계 회원 연계기관별 현황(’20, ’21) (단위: 건, %)

20년	소계	보건소	의료기관	정신보건기관	지역사회기관	학교	행정기관	기타
합계	2,484	42	931	475	686	9	265	76
	100.0	1.7	37.5	19.1	27.6	0.4	10.7	3.1
평균	99	2	37	19	27	0	11	3

20년	소계	보건소	의료기관	정신보건기관	지역사회기관	학교	행정기관	기타
합계	3,241	305	859	613	993	46	355	70
	100.0	9.4	26.5	18.9	30.6	1.4	11.0	2.2
평균	130	12	34	25	40	2	14	3

6) 데이터 비교를 위해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표기하였다.

3. 서울시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 직·간접서비스 현황<sup>7)</sup>

1) 개별상담 현황

2020년 서울시 25개 자치구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 개별상담은 총 181,862건으로 최소 3,557건부터 최대 16,913건까지 집계되었으며, 자치구 당 평균 7,274건(SD 3,167건)으로 나타났다. 2021년 서울시 25개 자치구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 개별상담은

총 191,030건으로 최소 4,503건부터 최대 16,445건까지 집계되었고, 자치구 당 평균 7,641건(SD 2,873건)으로 나타나 전년 대비 9168건(평균 367건) 증가, 5.0%의 증가율을 보였다.

<표32> 개별상담 수행 현황(’20, ’21) (단위: 건, %)

구분	20년	21년	증감	증감율
합계	181,862	191,030	9,168	5.0
평균	7,274	7,641	367	-
표준편차	3,167	2,873	-	-
최대값	16,913	16,445	-	-
최소값	3,557	4,503	-	-

월별 개별상담 현황을 살펴보면, 2020년에는 3월에 17,130건(9.4%)으로 가장 많았으며, 12월 17,103건(9.4%), 7월 15,939건(8.8%), 6월 15,833건(8.7%) 순으로 많은 상담이 진행되었다. 반면 2021년에는 7월에 17,956건(9.4%)으로 가장 많았으며, 8월

16,831건(8.8%), 3월 16,410건(8.6%), 4월 16,211건(8.5%) 순으로 많은 상담이 진행되었다. 2020년 대비 2021년 가장 많은 개별상담 건수가 상승한 달은 1월로 나타났으며, 1월(3,526건▲), 8월(2,034건▲), 7월(2,017건▲) 순으로 많은 상승 건수를 보였다.

<표33> 월별 개별상담 수행 현황(’20, ’21) (단위: 건, %)

구분	20년		21년	
	건수	비율	건수	비율
1월	11,594	6.4	15,120	7.9
2월	13,503	7.4	15,332	8.0
3월	17,130	9.4	16,410	8.6
4월	14,956	8.2	16,211	8.5
5월	15,369	8.5	14,207	7.4
6월	15,833	8.7	15,552	8.1
7월	15,939	8.8	17,956	9.4
8월	14,797	8.1	16,831	8.8
9월	15,396	8.5	15,588	8.2
10월	15,253	8.4	15,584	8.2
11월	14,989	8.2	16,209	8.5
12월	17,103	9.4	16,030	8.4
합계	181,862	100.0	191,030	100.0

7)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 사례관리 흐름을 확인하고자 부재 건을 포함한 전체 현황을 기준으로 하였다.

III. 연구결과

2020년 서울시 25개 자치구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회원 대비 개별상담 건수를 살펴보면, 2020년 등록회원은 9,627명(평균 385명), 개별상담 건수는 181,862건(평균 7,274건)으로 1인당 평균 18.9건의 상담이 수행되었다. 2021년 등록회원은

9,926명(평균 397명), 개별상담 건수는 191,030건(평균 7,641건)으로 1인당 평균 19.2건의 상담이 수행되었으며, 전년 대비 약 0.3건의 회원별 상담 건수가 증가했다.

<표34> 등록회원 대비 개별상담 현황(‘20, ’21) (단위: 명, 건)

구분	20년			21년		
	등록회원	개별상담	1인당 개별상담	등록회원	개별상담	1인당 개별상담
합계	9627	181,862	18.9	9926	191,030	19.2
평균	385	7,274	-	397	7,641	-

서울시 25개 자치구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 개별상담 상담 유형별 현황을 살펴보면, 2020년 개별상담 총 181,862건 중 전화상담이 104,143건(57.3%)으로 가장 많았고, 방문 상담(40,591건, 22.3%), 사이버상담(21,280건, 11.7%), 내소상담(14,766건, 8.1%), 기타(1,082건, 0.6%) 순으로 나타났다. 2021년의 역시 개별상담 총 191,030건 중 전화상담이 104,687건(54.8%)으로 가장 많았으며, 방문 상담(45,734건, 23.9%), 사이버상담

(21,668건, 11.4%), 내소상담(17,098건, 9.0%), 기타(1,823건, 1.0%) 순으로 나타났다. 상담 유형 중 대면율<sup>8)</sup> 현황을 살펴보면, 2020년 30.4%(55,357건, 평균 2,214건)에서 2021년 32.9%(62,832건, 평균 2,513건)로 전년 대비 대면율이 2.5%p 증가했다. 2021년 기준 전년 대비 방문 상담 비율이 22.3%에서 23.9%로 가장 많이 증가(1.6%p▲)했으며, 전화상담 비율이 57.3%에서 54.8%로 가장 많이 감소(2.5%p▼)했다.

<표35> 개별상담 상담 유형별 현황(‘20, ’21) (단위: 건, %)

20년	소계		내소		방문		사이버		전화		기타	
합계	181,862	100.0	14,766	8.1	40,591	22.3	21,280	11.7	104,143	57.3	1,082	0.6
평균	7,274	-	591	-	1,624	-	851	-	4,166	-	43	-
21년	소계		내소		방문		사이버		전화		기타	
합계	191,030	100.0	17,098	9.0	45,734	23.9	21,688	11.4	104,687	54.8	1,823	1.0
평균	7,641	-	684	-	1,829	-	868	-	4,187	-	73	-

8) 대면: 상담 유형 중 ‘내소, 방문’ | 비대면: 상담 유형 중 ‘사이버, 전화 기타’

2) 자원조정 현황

2020년 서울시 25개 자치구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원조정은 총 16,622건으로 최소 142건부터 최대 2,060건까지 집계되었으며, 자치구 당 평균 665건(SD 377건)으로 나타났다. 2021년 서울시 25개 자치구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원조정은 총 17,894건

으로 최소 105건부터 최대 1,306건까지 집계되었고, 자치구 당 평균 716건(SD 314건)으로 나타나 전년 대비 1,272건(평균 51건), 7.7%의 증가율을 보였다.

<표36> 자원조정 수행 현황(‘20, ’21) (단위: 건, %)

구분	20년	21년	증감	증감율
합계	16,622	17,894	1,272	7.7
평균	665	716	51	-
표준편차	377	314	-	-
최대값	2,060	1,306	-	-
최소값	142	105	-	-

등록회원 대비 자원조정 건수를 살펴보면, 2020년 등록회원 9,627명(평균 385명) 대비 자원조정 건수는 16,622건(평균 665건)으로 1인당 평균 1.7건의 자원조정이 수행되었다.

2021년 등록회원 9,926명(평균 397명) 대비 자원조정 건수는 17,894건(평균 716건)으로 1인당 평균 1.8건의 자원조정이 수행되며 전년 대비 약 0.1건의 회원별 자원조정 건수가 증가했다.

<표37> 등록회원 대비 자원조정 현황(‘20, ’21) (단위: 명, 건)

구분	20년			21년		
	등록회원	자원조정	1인당 자원조정	등록회원	자원조정	1인당 자원조정
합계	9627	16,622	1.7	9926	17,894	1.8
평균	385	665	-	397	716	-

서울시 25개 자치구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원조정 상담 유형별 현황을 살펴보면, 2020년 자원조정 총 16,622건 중 전화상담이 11,797건(71.0%)으로 가장 많았고, 방문 상담(3,771건, 22.7%), 사이버상담(460건, 2.8%), 내소상담(431건, 2.6%), 기타(163건, 1.0%) 순으로 나타났다. 2021년도 자원조정 총 17,894건 중 전화상담이 13,259건(74.1%)으로 가장 많았으며, 방문 상담(3,587건, 20.0%), 내소상담(690건, 3.9%), 사이버상담(270건, 1.5%), 기타(88건, 0.5%) 순으로 나타났다. 상담 유형 중 대면율<sup>9)</sup> 현황을 살펴보면, 2020년 25.3%(4,202건, 평균 168건)에서 2021년 23.9%(4,277건, 평균 171건)로 전년 대비 대면율이 1.4%p 감소했다. 2021년 기준 전년 대비 전화상담 비율이 71.0%에서 74.1%로 가장 많이 증가(3.1%p▲)했으며, 방문 상담 비율이 22.7%에서 20.0%로 가장 많이 감소(2.7%p▼)함. 이 부분 역시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타 기관과의 소통 과정에서 비대면 형태가 선호된 것으로 예상된다.

<표38> 자원조정 상담 유형별 현황(‘20, ’21) (단위: 건, %)

20년	소계		내소		방문		사이버		전화		기타	
합계	16,622	100.0	431	2.6	3,771	22.7	460	2.8	11,797	71.0	163	1.0
평균	665	-	17	-	151	-	18	-	472	-	7	-
21년	소계		내소		방문		사이버		전화		기타	
합계	17,894	100.0	690	3.9	3,587	20.0	270	1.5	13,259	74.1	88	0.5
평균	716	-	28	-	143	-	11	-	530	-	4	-

9) 대면: 상담 유형 중 ‘내소, 방문’ | 비대면: 상담 유형 중 ‘사이버, 전화 기타’

III. 연구결과

3) ISP 현황

서울시 25개 자치구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회원의 가장 최근  
에 수립된 ISP 내역을 기반으로 ISP 현황을 분석하였다.

2020년 등록회원 9,627명 중 중증정신질환 대상자가 6,967명  
(72.4%)으로 가장 많았으며, 아동·청소년 대상자 1,085명(11.3%),  
자살 예방 대상자 923명(9.6%), 중독관리 대상자 485명(5.0%), 파  
악 관리 대상자 167명(1.7%) 순으로 나타났다. 2021년 등록회원  
9,926명 중 중증정신질환 대상자가 7,262명(73.2%)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가장 많은 수를 차지했으며, 아동·청소년 대상자 1,174명  
(11.8%), 자살 예방 대상자 839명(8.5%), 중독관리 대상자 523명  
(5.3%), 자살 유족 대상자 77명(0.8%), 파악 관리 대상자 51명(0.5%)  
순으로 나타났다. 단, 자살 유족 대상자 구분의 경우, 2021년 8월 이후

기능개선을 통해 추가된 영역으로 2020년에는 구분이 제외되었다.  
2020년 중증 정신질환 대상자는 자치구 당 279명(SD 69명), 아동·  
청소년 43명(SD 19명), 중독관리 19명(SD 14명), 자살 예방 37명  
(SD 28명), 파악 관리 7명(SD 13명) 등록하여 사례관리 진행했으  
며, 2021년 중증 정신질환 대상자는 자치구 당 290명(SD 65명), 아  
동·청소년 47명(SD 20명), 중독관리 21명(SD 14명), 자살 예방 34  
명(SD 23명), 자살 유족 3명(SD 4명), 파악 관리 2명(SD 3명)을 등  
록하여 사례관리를 수행했다. 2021년 기준 전년과 비슷한 현황을  
보이나, 파악 관리 대상자의 평균 및 편차가 큰 폭으로 감소 되었다.  
2021년 기준 전년 대비 중증정신질환 대상자 비율이 72.4%에서  
73.2%로 가장 많이 증가(0.8%p▲)했으며, 파악 관리 대상자 비율  
이 1.7%에서 0.5%로 가장 많이 감소(1.2%p▼)했다.

<표39> 등록회원 ISP 사업구분별 현황(’20, ’21) (단위: 명, %)

20년	소계	중증정신질환	아동·청소년	중독관리	자살 예방	자살 유족	파악 관리
합계	9,627	6,967	1,085	485	923	-	167
	100.0	72.4	11.3	5.0	9.6	-	1.7
평균	385	279	43	19	37	-	7
표준편차	78	69	19	14	28	-	13
21년	소계	중증정신질환	아동·청소년	중독관리	자살 예방	자살 유족	파악 관리
합계	9,926	7,262	1,174	523	839	77	51
	100.0	73.2	11.8	5.3	8.5	0.8	0.5
평균	397	290	47	21	34	3	2
평균	65	65	20	14	23	4	3

한편, 2021년 가장 마지막에 수립된 ISP 기준 유지관리 이상 등록  
회원은 5,818명(평균 233명)으로 58.6%를 차지했으며, 이를 사  
업구분별로 확인해보면, 중증정신질환 유지관리 이상 대상자가 총  
4,416명(평균 177명)으로 전체 중증정신질환 대상자 7,262명 대비  
60.8%를 보였다. 아동·청소년 유지관리 이상 대상자는 총 779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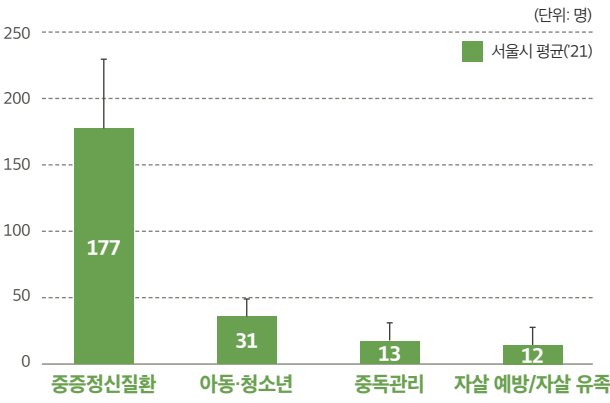
(평균 31명)으로 전체 아동·청소년 대상자 1,174명 대비 66.4%를  
보였으며, 중독 유지관리 이상 대상자는 총 327명(평균 13명)으로  
전체 중독관리 대상자 523명 대비 62.5%를 보였다. 자살 예방 및  
자살 유족 유지관리 이상<sup>10)</sup> 대상자는 총 296명(평균 12명)으로 전  
체 자살 예방 및 자살 유족 대상자 916명 대비 32.3%를 보였다.

<표40> 유지관리 이상 등록회원 ISP 사업구분별 현황(’21) (단위: 명, %)

21년	소계		중증정신질환		아동·청소년		중독관리		자살 예방/자살 유족	
합계	5,818	58.6	4,416	60.8	779	66.4	327	62.5	296	32.3
평균	233	-	177	-	31	-	13	-	12	-

※ 단, 해당 비율은 각 전체 ISP 사업구분별 인원 대비 비율을 집계함.

10) 단, 자살 관련 ISP 영역은 응급, 고위험, 중위험, 저위험으로 구분되고 있어 저위험을 제외한 중위험 이상을 유지관리 이상으로 갈음하  
여 집계함.



4) 네트워킹 현황

서울시 25개 자치구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 네트워킹 현황은  
2021년 각 기관 주최로 수행되었던 회의, 세미나, 자문, MOU, 견학  
데이터를 기반으로 집계하여 분석하였다.

2021년 서울시 25개 자치구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 유관기관 회  
의, 간담회, 자문 회의 및 내부 사례 회의 등 회의 실적을 살펴보면,

<표41> 회의 현황(’21) (단위: 건, %)

21년	소계		유관기관 회의		간담회		자문 회의		내부 사례 회의	
합계	2,005	100.0	215	10.7	185	9.2	213	10.6	1,392	69.4
평균	80	-	9	-	7	-	9	-	56	-

2021년 서울시 25개 자치구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진행한  
세미나, 자문, MOU, 견학 등을 기반으로 네트워킹 현황을 살펴보면,  
2021년 기준 네트워크는 총 1,132건(평균 45건) 진행되었고, 회의  
와 동일하게 자치구별 편차가 큰 편으로 나타났다. 자문이 934건(평

2021년 기준 총 2,005건(평균 80건) 진행되었으며, 자치구별 편차  
가 큰 편으로 나타났다. 내부 사례 회의가 총 1,392건(평균 56건)으  
로 69.4%를 차지하며 가장 많았으며, 유관기관 회의가 215건(평균  
9건)으로 10.7%, 자문 회의가 213건(평균 9건)으로 10.6%, 간담회  
가 185건(평균 7건)으로 9.2%를 차지하며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  
났다.

<표42> 네트워크 현황(’21) (단위: 건, %)

21년	소계		세미나		자문		MOU		견학	
합계	1,132	100.0	135	11.9	934	82.5	25	2.2	38	3.4
평균	45	-	5	-	37	-	1	-	2	-

III. 연구결과

4. 서울시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 집중사례관리 현황

서울시 25개 자치구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 집중사례관리 월별 현황을 살펴보면, 2020년 기준 6월에 집중사례관리 대상자가 총 701명(평균 28.0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뒤이어 11월 697명(평균 27.9명), 10월 694명(평균 27.8명), 12월 686명(평균 27.4명) 순으로 나타났다. 2021년의 경우, 4월에 집중사례관리 대상자가 총 807명(평균 32.3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뒤이어 10월 805명(평균 32.2명), 3월 804명(평균 32.2명), 9월 801명(평균 32.0명) 순으로 나타

났다. 한편, 2021년 기준 집중사례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례관리자의 경우 11월과 12월에 216명(평균 8.6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10월 212명(평균 8.5명), 5월 및 9월 205명(평균 8.2명) 순으로 나타났다. 대상자 수와 동일하게 1월에 191명(평균 7.6명)으로 가장 적었으며, 8월(194명, 평균 7.8명), 7월(198명, 평균 7.9명) 순으로 적은 현황을 보였다.

<표43> 월별 집중사례관리 수행 현황('20, '21) (단위: 명)

대상자													
20년	소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계	8,000	641	648	634	656	668	701	669	639	667	694	697	686
평균	320.0	25.6	25.9	25.4	26.2	26.7	28.0	26.8	25.6	26.7	27.8	27.9	27.4
21년	소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계	9,402	720	759	804	807	782	791	783	777	801	805	787	786
평균	376.1	28.8	30.4	32.2	32.3	31.3	31.6	31.3	31.1	32.0	32.2	31.5	31.4
사례관리자													
20년	소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계	2,129	167	170	170	170	175	180	171	178	185	188	187	188
평균	85.2	6.7	6.8	6.8	6.8	7.0	7.2	6.8	7.1	7.4	7.5	7.5	7.5
21년	소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계	2,441	191	200	199	202	205	203	198	194	205	212	216	216
평균	97.6	7.6	8.0	8.0	8.1	8.2	8.1	7.9	7.8	8.2	8.5	8.6	8.6

서울시 25개 자치구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 집중사례관리 연인원 현황을 살펴보면, 2020년 기준 대상자 총 8,000명으로 최소 51명부터 최대 573명까지 집중사례관리 대상자로 선정되어 서비스를 제공받았으며, 자치구 당 평균 320명(SD 142명)으로 나타났다. 사례관리자는 총 2,129명으로 최소 37명부터 최대 119명까지 집중사례관리 서비스를 수행하였으며, 자치구 당 평균 85명(SD 24명)으로 나타났다. 2021년 기준 대상자는 총 9,402명으로 최소 110명부

터 최대 624명까지 집중사례관리 대상자로 선정되어 서비스를 제공받았으며, 자치구 당 평균 376명(SD 159명)으로 나타났다. 사례관리자는 총 2,441명으로 최소 45명부터 최대 140명까지 집중사례관리 서비스를 수행하였으며, 자치구 당 평균 98명(SD 22명)으로 나타났다. 연인원 기준 2020년에는 사례관리자 1인당 집중사례관리 대상자 3.8명을 관리하였으며, 2021년에는 사례관리자 1인당 집중사례관리 대상자 3.9명을 관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44> 집중사례관리 연인원 현황('20, '21) (단위: 명)

구분	20년			21년		
	대상자	사례관리자	사례관리자 1인당 대상자	대상자	사례관리자	사례관리자 1인당 대상자
합계	8,000	2,129	3.8	9,402	2,441	3.9
평균	320	85	-	376	98	-
표준편차	142	24	-	159	22	-
최대값	573	119	-	624	140	-
최소값	51	37	-	110	45	-

서울시 25개 자치구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 집중사례관리 실인원 현황을 살펴보면, 2020년 기준 대상자 총 1,510명으로 최소 12명부터 최대 131명까지 집중사례관리 대상자로 선정되어 서비스를 제공받았으며, 자치구 당 평균 60명(SD 27명)으로 나타났다. 사례관리자는 총 260명으로 최소 7명부터 최대 16명까지 집중사례관리 서비스를 수행하였으며, 자치구 당 평균 10명(SD 2명)으로 나타났다.

<표45> 집중사례관리 실인원 현황('20, '21) (단위: 명)

구분	20년			21년		
	대상자	사례관리자	사례관리자 1인당 대상자	대상자	사례관리자	사례관리자 1인당 대상자
합계	1,510	260	5.8	1,754	279	6.3
평균	60	10	-	70	11	-
표준편차	27	2	-	32	3	-
최대값	131	16	-	154	18	-
최소값	12	7	-	19	4	-

2021년 집중사례관리 대상자 선정 사유 현황을 살펴보면 불안정한 만성 정신질환 대상자가 816건(평균 33건)으로 38.4%를 차지하여 가장 많았으며, 정신과적 문제로 자·타해 위험이 있는 대상

자 372건(평균 15건), 자살 시도력 및 구체적인 자살계획으로 자살 시도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대상자 302건(평균 12건) 순으로 나타났다.

<표46> 집중사례관리 대상자 선정 사유별 현황('21) (단위: 건, %)

20년	소계	자본 병원, 응급 다	초발	불안정 만성	퇴원	자·타해	자살 고위험	퇴원명령	외래명령	병원기반	기타 및 누락
합계	2,126	66	139	816	186	372	302	1	6	13	225
	100.0	3.1	6.5	38.4	8.7	17.5	14.2	0.0	0.3	0.6	10.6
평균	85	3	6	33	7	15	12	0	0	1	9

2021년 집중사례관리 대상자 종결 사유 현황을 살펴보면 관리 구분 변경이 954건(평균 38건)으로 78.8%를 차지하여 가장 많았

으며, 기타 및 누락이 87건(평균 3건), 서비스 거부가 71건(평균 3건) 순으로 나타났다.

<표47> 집중사례관리 대상자 종결 사유별 현황('21) (단위: 건, %)

20년	소계	관리구분 변경	사례관리 연계	사망	전출	서비스 종결	서비스 종결	기타 및 누락*
합계	1,210	954	18	9	34	37	71	87
	100.0	78.8	1.5	0.7	2.8	3.1	5.9	7.2
평균	48	38	1	0	1	1	3	3

\* 기타 및 누락 87건: 사례관리자 변경(휴직 및 퇴직 등) 25건(28.7%), 입원 24건(27.6%), 개인 사유 및 요청 13건(14.9%), 누락 4건(4.6%), 행방불명 및 연락 두절 3건(3.4%), 18건(20.7%)은 세부 사유 미기재로 확인 불가.

2021년 집중사례관리 대상자 외래 치료 현황을 살펴보면 1개월에 1회 이상 정기 외래가 7,793건(평균 312건)으로 82.9%를 차지하여 가장 많았으며, 2·3개월에 1회 이상 격월 외래가 819건

(평균 33건)으로 8.7%, 기타가 464건(평균 19건)으로 4.9%, 4개월 이후 간헐적 외래가 326건(평균 13건)으로 3.5% 순으로 나타났다.

<표48> 집중사례관리 대상자 외래 치료 현황('21) (단위: 건, %)

21년	소계		정기외래		격월외래		간헐외래		기타	
합계	9,402	100.0	7,793	82.9	819	8.7	326	3.5	464	4.9
평균	376	-	312	-	33	-	13	-	19	-



III. 연구결과

2021년 집중사례관리 대상자 약물복용 현황을 살펴보면 스스로 꾸준히 정기적으로 복용하는 빈도가 6,471건(평균 259건)으로 68.8%를 차지하여 가장 많았으며, 자·타의에 의한 간헐적/선택적 복용이 1,307건(평균 52건)으로 13.9%, 기타(약물 관리 안됨, 약물 미복용 등)가 899건(평균 36건)으로 9.6%, 보호자에 의한 정기복용이 725건(평균 29건)으로 7.7% 순으로 나타났다.

<표49> 집중사례관리 대상자 약물복용 현황(21) (단위: 건, %)

21년	소계		스스로 정기복용		보호자에 의한 정기복용		자·타의에 의한 간헐적/선택적 복용		약물관리 안 됨, 제외 등 기타	
합계	9,402	100.0	6,471	68.8	725	7.7	1,307	13.9	899	9.6
평균	376	-	259	-	29	-	52	-	36	-

2021년 집중사례관리 대상자 입원 현황을 살펴보면, 총 1,754명의 대상자 중 연도와 무관하게 1회 이상 입원한 대상자는 89명(평균 4명)으로 5.1%를 차지하였으며, 2021년 중 1회 이상 입원한 대상자는 74명(평균 3명)으로 4.2%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50> 집중사례관리 대상자 입원 현황(21) (단위: 명, %)

구분	전체 실인원	전체 입원 실인원		21년 입원 실인원	
합계	1,754	89	5.1	74	4.2
평균	70	4	-	3	-

2021년 집중사례관리 대상자 재선정 현황을 살펴보면, 총 1,754명의 대상자 중 연도와 무관하게 1회 이상 이전 ICM 선정 이력이 있는 대상자는 283명(평균 11명)으로 16.1%를 차지하였으며, 2021년 중 ICM 선정 이력이 있는 대상자는 87명(평균 3명)으로 5.0%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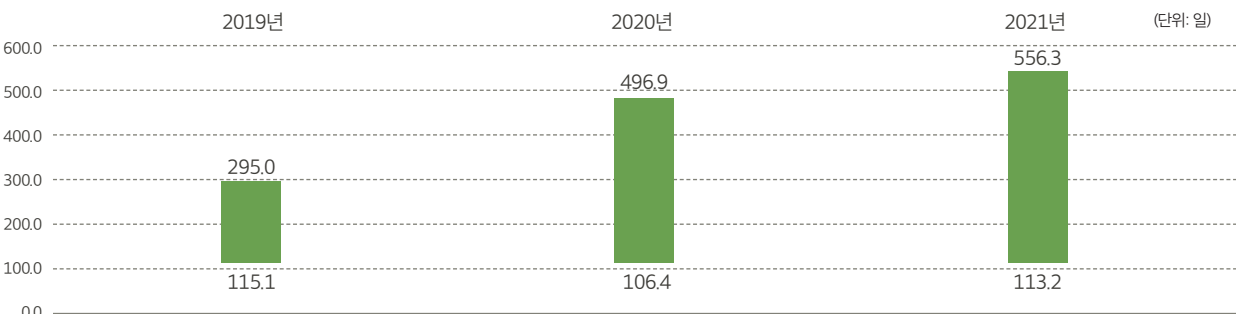
<표51> 집중사례관리 대상자 재선정 현황(21) (단위: 명, %)

구분	전체 실인원	전체 재선정 실인원		21년 재선정 실인원	
합계	1,754	283	16.1	87	5.0
평균	70	11	-	3	-

서울시 25개 자치구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 집중사례관리 대상자 평균 개입 기간을 3개년(19년~21년) 기준 현황으로 살펴보면, 2019년 175.2일(약 5.8개월)에서 2020년 202.1일(약 6.7개월), 2021년 205.1일(약 6.8개월)로 나타났다. 2019년 대비 2020년에는 26.9일(약 0.9개월), 2020년 대비 2021년에는 3.0일(약 0.1개월) 증가하여 전년 대비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나 증가 폭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52> 집중사례관리 평균 개입 기간 현황(19, '20, '21) (단위: 일, 개월)

구분	19년	20년	21년
평균 개입 기간	175.2	202.1	205.1
	5.8	6.7	6.8
최대값	295.0	496.9	556.3
최소값	115.1	106.4	113.2



IV. 결론

본 조사는 서울 지역 25개 자치구 정신건강복지센터를 대상으로 정신건강사례관리시스템(MHIS) 내 통계 및 집중사례관리 서비스(ICM) 기반의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 사례관리 서비스 현황을 분석하였다. 2021년 서울시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는 코로나 19의 장기화로 인해 기존 등록회원 중심의 사례관리 서비스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 대상의 정신건강 상담에 많은 업무량이 투입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서비스 수행 과정에서는 일반 시민 및 외부 기관과 소통 시 전화 등 비대면 서비스 위주로 진행되었으며, 등록회원 사례관리 시 방문 등 대면 서비스를 중심으로 진행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집중사례관리 서비스 제공 시 대내외적 상황에 따라 일부 중단되는 기관이 있었으나 지속·확대하고자 노력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지역사회 정신건강 사업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해야하는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여건 및 환경 조성에 대해 고민이 필요하다. 급변하는 정신건강 환경 변화에 따라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역할은 확장되어왔으며, 이에 따른 인력 문제는 지속적으로 언급되어왔다. 특히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전문 요원 비율은 점차 감소하는 추세이고,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인한 짧은 근속 연수는 전문적인 기관으로서 역할 수행에 한계점으로 지적된다. 이에 표준화된 교육 등 전문성 강화와 함께 1인당 적정 사례관리 인원 확보, 안전에 대한 지원 등 처우를 개선함으로써 안정적인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또한 정신건강증진사업 확대에 따라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요구되는 주요 기능에 따른 우선순위 선정이 필요하다. 자원의 한계 속에서 서비스의 누락 및 중복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원활한 네트워크가 조직되어야 하고, 이는 각 기관별 고유의 역할 및 정체성이 뚜렷함을 전제로 한다. 정신보건-의료-복지 영역의 안정적인 연계망을 중심으로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정신건강 서비스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사례관리 등 핵심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특히 정신 건강 영역의 통합적 서비스가 강조되는 환경 속에서 전문적인 기관으로서 역할 수행을 위해 정기적인 피드백 및 환류 체계가 요구된다. 객관적이고 신뢰도 있는 데이터 기반의 현황 분석을 통해 양질의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 환경 조성 역시 고민되어야 할 과제로 보인다.

V. 참고문헌

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 외(2022), 국가 정신건강현황 보고서 2020, 11-1352629-000022-10  
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2022), 2021년 정신건강실태조사 보고서, 11-1352629-000065-01  
보건복지부(2021), 2021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안내  
보건복지부 외(2021), 제2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2021~2025)  
건강보험심사평가원(2022), 최근 5년(2017~2021년) 우울증과 불안장애 진료 현황 분석 보도자료(2022.06.24. 배포)